

2005 '

설날 가정예배



일시: 2월 9일 (수) 설날 아침

www.chungpa.or.kr

청파교회에서 가정예배를 돕기위해 제작하였습니다.

설날 가정예배

〈가급적 설날 아침에 온 가족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이때
가족 중에 믿음의 연장자가 예배를 인도한다〉

예배로의 초대 인 도 자

설날을 맞아,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시편 121편 인 도 자

찬 송 248. 시온의 영광이 다 같 이

교 독 문 67번 다 같 이

인도자: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회 중: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인도자: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회 중: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인도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회 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인도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
을 벗어 버리고

회 중: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
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인도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회 중: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인도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다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기 도 가 족 중

성 경 말 씀 고전 13:4-7 인 도 자

설 교 사랑의 사람 가 족 중

찬 송 434.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다 같 이

주 기 도 다 같 이

설교말씀 -----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사랑"의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십계명도 1-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요, 5-10계명까지는 사람에게 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 중 제일도 사랑이고, 성령의 열매 중 가장 먼저 맺히는 것도 사랑입니다. 사랑은 다음의 세 가지로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사랑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고전 13:1-3에는 사랑은 이 세상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사랑없이 하는 말은 꿩고리 같이 듣기 싫은 소음공해가 될 것입니다. 또 성경지식을 많이 알고 믿음이 아주 좋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내 물질을 다 주고 아무리 헌신을 해도 사랑이 없다면 열매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없이 하는 신앙생활은 외식이요, 그런 열심과 업적은 오히려 해가 됩니다.

둘째, 사랑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랑(Love)이라는 단어는 추상명사라기보다는 동사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은 본문에 나와있듯이 "하라"고 한 7가지 긍정적 명령은 반드시 해야 하고, "하지 말라"고 한 8가지 부정적인 명령은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는 사랑에는 수고가 따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고하는 희생이 없이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요한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했습니다(요일3:18). 이와 같이 사랑한다면 내 사랑하는 대상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부부와 부모-자녀간에도 친지와 이웃간에도 마음과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셋째,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다른 은사들은 결국 사라지지만, 사랑은 영원합니다. 믿음과 소망도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이지만, 사랑은 이 땅과 저 세상에서 영원히 존재합니다. 시간적인 의미에서만 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대상에 있어서도 끝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랑을 받지 않고 살만한 완벽한 사람도 없고, 사랑을 못할 만큼 부족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들의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께서 베푸신 사랑도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사랑의 물줄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어지도록 노력하는 새해가 됩시다. 아멘.

봄 길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 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정호승